

이야기지도안

교육목표

제목 단군 이야기

나이 어린이 (6~9세)

주제 • **목표** :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을 배운다.
• **주제** : 인내

핵심어 환웅, 건국 신화, 단군, 웅녀, 호랑이, 곰, 고조선, 개천절

한국문화 • **목표** :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단군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는다.
• **요소** : 단군, 고조선

한국어 • **목표** :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고, 등장인물의 소원을 말해 본다.
• **단어** : 환웅, 웅녀, 곰, 호랑이
• **표현** : 환웅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000,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예요.



제목 알리기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똑딱!
'단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우리나라의 현재 이름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다른 이름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나요? 우리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나라의 이름은 '고조선'이에요. 고조선은 단군 할아버지가 세운 나라예요. 이 단군 할아버지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어떤 이야기인지 할머니와 함께 들어볼까요?



이야기 시작 노래 부르기

'단군 이야기' 속으로 출발!

♪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 보아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뽕뽕! ♪



이야기 들려주기

아주 까마득하게 멀고 먼 옛날이야기예요. 하늘나라에는 임금님이 살았어요. 임금님에게는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환웅은 무척 지혜롭고 호기심이 많았지요. 환웅은 틈만 나면 구름 사이로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았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변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르게 사는 모습이 무척 신기해 보였어요.

“사람들은 참으로 재미있게 사는구나. 하늘나라도 좋지만,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 보는 것도 좋을 텐데…….”

환웅의 소원을 눈치챈 임금님이 말했어요.

“아들아,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 사람들을 크게 도와주겠느냐?”

환웅은 뿔 듯이 기뻐했어요.

“고맙습니다. 아버님! 꼭 그렇게 해 보고 싶습니다.”

환웅은 태백산 꼭대기 신비로운 나무 밑으로 내려왔어요.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을 진심으로 반겼어요. 환웅은 같이 내려온 바람의 신, 구름의 신, 비의 신과 함께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사람들은 환웅 덕분에 평화롭게 살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호랑이와 곰이 찾아와 환웅에게 소원을 말했어요.

“환웅 님, 저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야기 들려주기

“환웅 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자 환웅은 쑥 한 다발과 마늘 스무 개를 주며 말했어요.

“오로지 이 쑥과 마늘만 먹으면서 백 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사람이 될 것이다.”

“고맙습니다, 환웅 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쑥과 마늘을 받은 곰과 호랑이는 햇빛이 한 점도 들지 않는 캄캄한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동굴 속은 캄캄해서 무척 갑갑하고 지루했어요. 게다가 쑥과 마늘은 쓰고 매워서 먹기 힘들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호랑이가 말했어요.

“백일이나 있어야 한다니! 나는 못 참겠어. 밖에 나갈 거야. 쑥도 마늘도 안 먹을 거야.”

“사람이 되려면 힘들어도 참아야 해. 우리 조금만 더 노력해 보자. 포기하지 마.”

곰이 호랑이를 달랬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어흥, 나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 호랑이로 살 거야. 어흥!”

호랑이는 동굴을 뛰쳐나갔어요. 혼자 남은 곰은 무섭고 외로웠지만 입을 앙다물고서 꼭 참았어요. 꼭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이야기 들려주기

해가 언제 뜨고 지는지도 모르며 지내던 어느 날, 곰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온몸이 아파 오더니 커다란 입과 귀가 작아지고 날카로운 발톱이 뭉툭해졌어요. 또 온몸을 덮은 굵고 짙은 털이 가늘어졌어요. 곰이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마침내 곰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사람으로 변한 곰은 동굴 밖으로 나왔어요.

“오, 곰이 사람이 되었네. 오, 여자로 변했어.”

사람들은 곰을 웅녀라고 불렀어요. 웅녀는 곰이 여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웅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아기를 낳아 잘 키우고 싶었어요.

“저도 아기를 낳게 해주세요.”

웅녀는 날마다 신비로운 나무 아래에서 정성껏 빌고 또 빌었어요. 환웅은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웅녀를 묵묵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환웅은 웅녀에게 말했어요.

“웅녀, 나와 결혼해 주시오.”

환웅과 웅녀는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했어요. 하늘에서 무지갯빛 햇살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췄지요. 환웅과 결혼한 웅녀는 열 달 만에 건강한 아들을 낳았답니다.



이야기 들려주기

“이 아이의 이름은 ‘단군’이라 하겠소. 단군도 나와 같이 세상을 크게 도울 것이오.”

환웅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어요.

어린 단군은 씩씩하게 잘 자라서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크게 도와주려고 노력했어요. 이후 단군은 천 년이 넘도록 고조선을 지혜롭게 다스리다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산신령이 되었대요. 산신령이 된 후에도 자신이 세운 나라 고조선과 백성들을 잊지 않고 잘 보살폈다고 합니다.



한국문화, 한국어 소개하기

여러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잘 들었나요?

단군 이야기에는 다양한 소원이 나왔어요. 소원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환웅의 소원은 무엇이었나요? 그래요. 땅에 내려와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였어요. 환웅은 아이를 갖고 싶은 웅녀의 소원도 들어주었지요. 환웅은 웅녀와 결혼해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바로 단군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단군 할아버지는 어떤 일을 했지요?

맞아요. 고조선을 세우고 왕이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매년 고조선이 세워진 날을 기념하고 있어요. 바로 10월 3일이예요. 그날을 개천절이라고 하지요. 개천절이 되면 집집마다 태극기를 달아서 축하해요. 개천절은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이예요. 단군할아버지의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내려왔기 때문이예요. 단군할아버지는 아빠처럼 다른 사람들을 크게 도와주려고 노력했어요. 이런 마음을 홍익인간이라고 한답니다. 단군할아버지와 고조선이 궁금한 친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아요!



이야기 정리하기

여러분, 할머니와 '단군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환웅을 찾아온 곰과 호랑이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둘은 깜깜한 동굴 속에서 썩과 마늘을 먹어야 했어요. 호랑이는 버티지 못하고 포기했지만 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섭고 외로웠지만 긴 시간 동안 노력한 곰은 마침내 웅녀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원하는 게 있다면 곰처럼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 보아요. 중간에 힘든 상황이 와도 “나는 할 수 있어.”라고 말해 보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이야기 마치는 노래 부르기

그럼, 이야기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랑 인사합시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시작!

♪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뽕뽕!♪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